

# ‘멋·맛·즐거움’ 해남의 가을 축제로 물든다

가을빛이 물드는 10월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해남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전남캠핑관광박람회와 세계적 스포츠대회, 수확의 계절에 맞는 미식축제가 연이어 열리면서 맛과 멋, 즐거움을 전한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전남광주캠핑관광박람회가 열린다. 드넓은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캠핑레저 관련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최신 장비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 국내 최대 규모 야외 캠핑관광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전국 780여팀, 4000여명의 캠핑 동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규모 캠핑대회가 열린다. 캠핑 관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9일 저녁에는 오시아노 뮤직 페스타도 진행된다.

민간정원인 산이정원에서는 17~18일 정원페스타가 열린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산이면 구성리 일원에 조성된 산이정원은 ‘산이 곧 정원이 된다’는 이름에 걸맞게 압도적인 규모와 함께 해남의 풍요로운 자연을 그대로 살린 공간 구성으로

캠핑관광박람회·정원페스타·미남축제 등 줄이어 방문객에 해남의 자연·문화 동시 경험 기회 제공

로 전국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17일에는 고구마 캐기 체험과 어린이 사생대회, ESG 정원학교 준공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는 ‘2026 산이정원 정원페스타’가 열리고, 18일에는 산이정원과 솔라시도대교 등을 달리는 마라톤 대회가 진행된다.

22일부터 25일까지는 해남 파인비치골프링크스에서 국내 유일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규대회인 ‘2026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가 이어진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푸른 가을하늘 아래 샷을 겨루는 장면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자 흥미진진한 스포츠 대결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이번 대회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해남의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10월 축제의 대미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해남미남축제가 장식한다. ‘맛있는 해남’을 주제로 제철 농산물과 해남8미로 대표되는 맛있는 음식,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창의적인 요리가 한자리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해남쌀을 주제로, 쌀 전시·홍보와 판매까지 연계한 주제관 운영과 해남 8미를 중심으로 한 미식관과 주전부리관 음식 판매,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된다.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가을밤 낭만 콘서트와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두륜산의 정취는 축제의 기억을 더욱 깊게 만든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의 가을이 축제로 물들고 있다”며 “가을을 오롯이 느끼고 싶다면 해남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가을빛이 물드는 10월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해남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전남캠핑관광박람회와 세계적 스포츠대회, 수확의 계절에 맞는 미식축제가 연이어 열리면서 맛과 멋, 즐거움을 전한다.

영암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영암군이 달맞이공원에 장애인과 어르신 등 보행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900m 길이의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했다.

6일 영암군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을 최근 준공했다.

사업에는 복권기금과 군비 등 4억2953만원을 투입했다. 기존 560m 구간을 정비하고 370m의 길을 새로 조성해 달맞이공원 내 보행로를 연결했다.

보행로는 경사도를 8% 이하로 조성해 걷기 편하도록 했으며, 국일관에서 달 조형물을 돌아오는 약 500m 구간은 휠체어로도 이용할 수 있다.

영암군은 새로 조성한 무장애 나눔길을 달맞이공원의 녹지와 연계해 장애인과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걷고 쉬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 “강진 마량서 신선한 해산물 맛보세요”

10일 마량농토수산물시장서 ‘미향횡집거리 특별 이벤트’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강진군은 오는 10일 마량농토수산물시장에서 ‘마량 미향횡집거리 방문의 달’이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남도음식거리인 마량 미향횡집거리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 방문과 지역 음식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량농토수산물시장 내 홍보부스에서 진행된다.

먼저 240명 한정으로 ‘SNS 홍보 이벤트’를 운영한다. 마량 미향횡집거리 조형물 사진을 촬영해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게시한 뒤 인증하면 뽑기를 통해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이용객을 위한 ‘마량 미향횡집거리 감자 이벤트’도 마련된다. 행사 당일 마량면 소재 음식점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강진군은 오는 10일 마량농토수산물시장에서 ‘마량 미향횡집거리 방문의 달’이 이벤트를 개최한다.

홍보부스에 제출하면 결제 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증정한다.

사은품은 3만원 이상 결제 시 리유저블백, 5만원 이상 결제 시 양우산, 10만원 이상 결제 시 스테인리스 머그컵이다.

마량 미향횡집거리는 2021년 남도음식거리로 지정됐으며, 마량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음식점이 자리하고 있다. 방문객

들은 향구의 정취와 푸른 바다를 감상하며 신선한 회와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어 마량의 풍부한 먹거리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마량 미향횡집거리의 매력을 널리 알려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완도, 9일 가을 해변 독서 문화 축제 개최

2000여권 책 배치…책·문화·예술 프로그램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완도군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과 함께 ‘제3회 가을 해변 독서 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가을 해변 독서 문화 축제는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며,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책과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야외 도서관을 비롯해 작가와 함께 하는 체험, 공연, 전시, 독서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야외 도서관은 행사장의 인조 잔디 위에 도서 2000여권과 인디언 텐트, 파라솔, 빈백 등을 배치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작가와 함께 ‘나만의 바다 그리기’와 ‘책갈피 만들기’를 하고 원목 키템, 독서 무드 등 공예, 인공지능(AI) 동화책 만들기, 완도 굿즈 만들기, 완도의 랜드마크 스케치 등도 체험할 수 있다.

9일에는 요들송·스위스 악기 연주, 10

일에는 어린이 인형극 ‘책이 품지락품지락’, 11일에는 매직 쇼와 풍선 아트, 로봇 인형이 함께하는 스페셜 키즈 매직쇼 등을 선보인다.

청해 문학상 수상작과 완도를 소재로 한 도서, 전남 올해의 책, 독서 동아리 추천 도서,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편지 등 책과 작품 전시도 한다.

이외에도 부스를 체험하고 완도 굿즈를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퀴즈, 그림책 읽기와 책놀이 등 참여형 이벤트도 준비했다.

군 관계자는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과 함께 책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고 특별한 추억 쌓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교육지원청에서는 축제의 원예산 지원,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행사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광남일보 청년창업지원 캠페인

# 청년창업 미래를 열다



**Dream** 아이디어를 현실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Grow** 시작했다면, 더 크게  
청년 창업 성장 육성 프로젝트



**Start** 시작에 힘을 더하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Leap** 더 큰 도약을 위한  
돈돈한 힘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미래**가 되도록

청년이 머물고, 꿈꾸고, 성장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를 만들어갑니다

